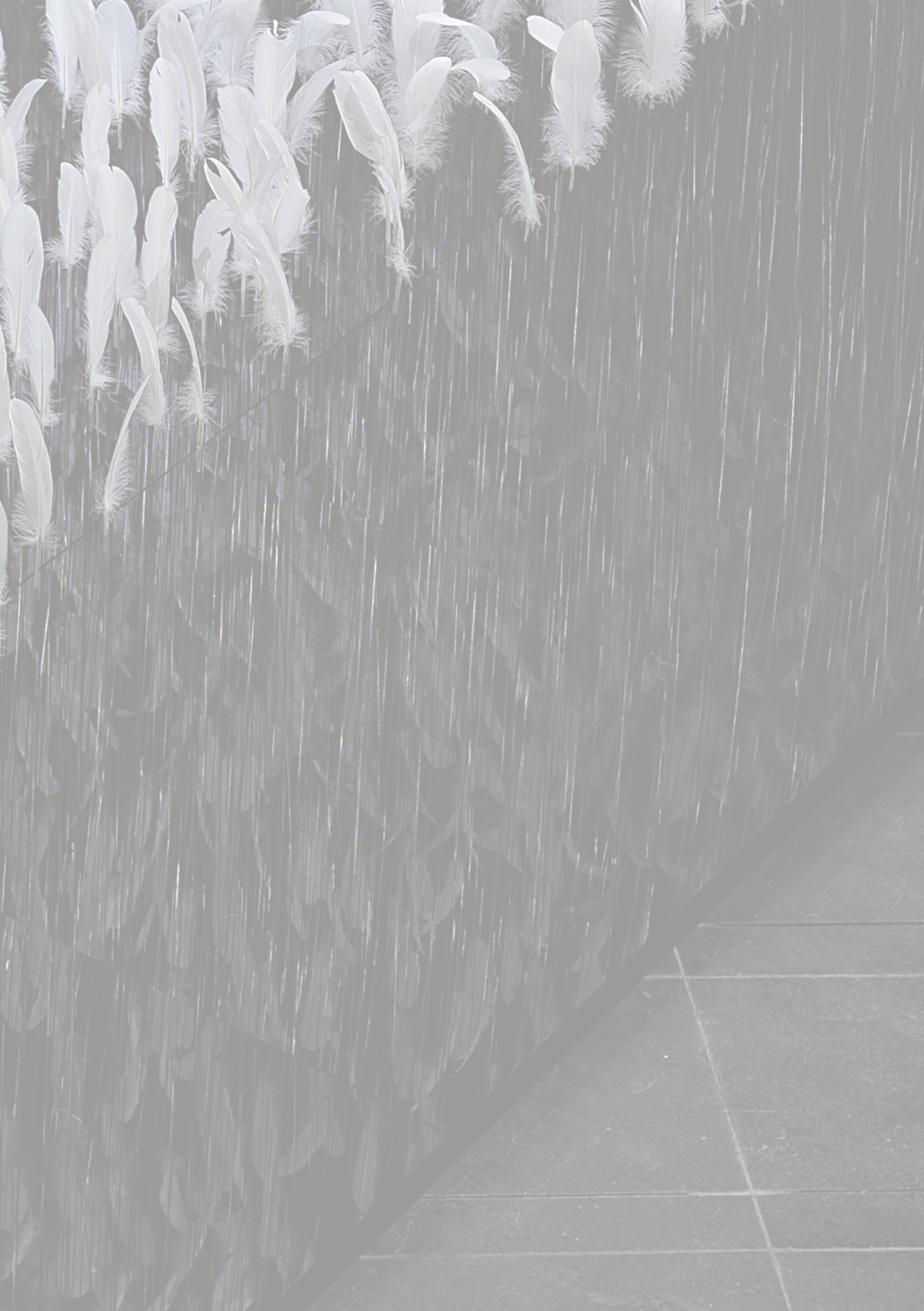




Running Stage

2022-2023 작가조사연구비평
Artist Research Study Critique

FEATURED ARTIST
Lee Yeonsook
이연숙



유현주 (총괄기획자)
Yu Hyunju (Director)

정수경 (책임연구원)
Chung Sukyung (Principal Researcher)

이선영 (연구원)
Lee Sunyoung (Researcher)

정현 (연구원)
Jung Hyun (Researcher)

고충환
Kho Chunghwan

남인숙
Nam Ihnsook

마동은
Ma Dongeun

오진이
Oh Jinyee

유영아
Rue Youngah

이선
Lee Sun

백기영
Peik Kiyong

Ihor Holubizky
이호르 홀루비츠키

Sacha Kagan
사샤 카간

Evelyn Huang, Yuka Dian Narendra
이블린 후앙, 유카 디안 나렌드라

이연숙의 지속가능한 ‘러닝 스테이지’를 위하여

유현주 (총괄기획자)

2022년 아르고에서 주관하는 ‘작가조사연구비평사업’을 통해 이연숙 작가에 대한 연구성과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천명을 눈앞에 둔 이연숙의 지나온 예술 인생은 신호등 없는 광야처럼 혹은 사막의 한가운데를 달리는 아우토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동안 비닐봉지 작가로 알려지면서 종횡무진하던 그녀는 점차 도시의 오래되고 허물어질 집, 재개발 지역의 공간들 그리고 사회 정치적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라진(사라질) 인간/비인간의 공동체가 거주한 장소에서 개인의 사적 기억과 공적 장소의 기억이 교차하는 ‘장소-기억’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들에서 작가는 삶의 기억을 소환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작은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람들 각자의 기억과 공유되길 바라는 감정을 시처럼 표현해 왔습니다.

근 십여 년간 작가의 작업을 지켜본 기획자는 본 연구사업의 틀을 크게 작가의 작업에 대한 아카이브와 비평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작품 아카이브는 작가가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던 무렵의 작업과 영국 유학 기간에 했던 작업 그리고 귀국한 이후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카이브 된 전체를 총망라해서 작업의 주제를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필진들의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의 작업 주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브제 중심 시기의 비닐봉지 주제의 작업’, 둘째 ‘장소특정적 설치 혹은 퍼포먼스 유형의 작품’, 셋째 ‘기억-공간의 내러티브 영상 및 퍼포먼스’ 이 세 가지 방향의 중심에는 작가가 추구하는 ‘장소-기억’이 큰 기동을 이루고 있으며, 작업 장소와 환경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하여 작가 자신의 사적 기억과 공적 공간에 대한 내러티브가 각 작업의 서사구조를 보여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아카이브 자료를 탐구하면서 작가의 작업을 연구한 결과, 필진들의 주제는 작가의 주제를 정신분석적으로 혹은 미술사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주로 기억과 이미지, 수행성, 무의식, 장소특정적, 장소의 공공기억 등을 키워드로 한 비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기억’의 주제를 이연숙 작가에 대한 집중적인 담론으로 다룬 점이 이번 연구의 의미미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필진들의 원고에 대한 총평을 맡아주신 책임연구원 정수경 교수님을 비롯하여, 연구원으로서 미술사적 연구를 해주신 두 분 정형, 이선영 그리고 심도 있는 원고를 써주신 고충환, 남민숙, 마동은, 오진이, 유영아, 이선, 백기영 선생님, 멀리 해외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Ihor Holubizky, Sacha Kagan, Evelyn Huang, Yuka Dian Narendra 이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or Lee Yeonsook's Sustainable 'Running Stage'

Yu Hyunju (Director)

I am pleased to see the research outcomes on the artist Lee Yeonsook finally come to light through the 2022 Arko-sponsored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project. As she approaches the age of 50, her past artistic journey can be described as an auto-van traversing through a signal-less wilderness or the middle of a desert. After completing her studies abroad and gaining recognition as an artist of 'plastic bag,' she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theme of 'place-memory.' In this ongoing work, personal memories intersect with memories of public places such as old and vanishing houses in the city, spaces in redevelopment areas, and locations where communities of humans/non-humans, disappeared (or to be disappeared) by socio-political power, once resided. In these often-overlooked heterotopias, she recalls memories of life, passionately insisting that profoundly personal and private things are beautiful. She expresses emotions, hoping for these personal memories to be shared, like poetry, and conveying this sentiment with the hope that her assertion resonates with people's memories of their own.

As an observer Yeonsook's works for the past decade, I divided this research project into two main components: artwork archive and critique. Firstly, the artwork archive comprises pieces created during her time at the Sculpture Department of Hongik University, works from her study-abroad perio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ose produced after her return to Korea. By encompassing the entire archive and categorizing it into three parts, I outlined the themes of the artworks. This serves as the basis for contributors to conduct research and criticism. Her work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themes.

Firstly, during the period when she focused on the 'object' and used plastic bags as a theme; secondly, works in the form of 'site-specific installations or performances'; and thirdly, 'narrative videos and performances on the theme of 'place-memory' At the core of these three categories, her pursuit of 'place-memory' serves as a significant focal point. Based on the exploration of working places and environments, the narrative of her personal memories and public spaces forms the structural basis of each work. Through participation in workshops online and offline or researching archive materials, the outcome of studying her works revealed that contributors approached her themes from a psychoanalytic or art historical perspective. The main focus of the critiques revolved around keyword such as memory and imagery, performativity, the unconsciousness, site-specific, and the public memory of places. Focusing on the central discourse of 'place-memory' in Lee Yeonsook's works, this study has meaningful results.

I would like to express sincere gratitude to Professor Chung Sukyung, the head researcher who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and provided comments on all the contributors' manuscripts. Special thanks to researchers Jung Hyun and Lee Sunyoung, as well as contributors Kho Chunghwan, Nam Ihnsook, Ma Dongeun, Oh Jinyee, Rue Youngah, Lee Sun and Peik Kiyoung, for their in-depth research and valuable manuscripts. Furthermore, I am deeply grateful to those contributors from abroad with special interest, including Ihor Holubizky, Sacha Kagan, and Evelyn Huang, Yuka Dian Narendra.

이연숙작가 '대표작품 8선 해제' 중 세 개의 작품 소개 글 (부분)

An Introduction to Three Works of 'Notes for 8 Important Works' by Lee Yeonsook (Part)

1. <Mom's Flower Garden>(2012)

비닐 vs 엄마/생태적 삶

초기 비닐 오브제 작업에서 드러난 작가의 생태적 문제의식은 쇼핑한 후 버려진 비닐봉지를 모아 매듭짓기를 해서 만든 꽃과 상들리에를 보여준 2010년 런던의 저우드 스페이스(Jerwood Space)에서의 전시 《Re-use Me》에서도 연속된다. 이들 전시에서 짧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사물의 가치에 대한 고찰은 2012년 금호미술관에서의 비닐봉지 작업들(<Vanished Landscape>, <Yellow Flower>, <Mom's Garden> 등)과, 같은 해 갤러리 조선에서 열린 《Collective Collection》전의 <The House for Memory> 등의 작업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Mom's Flower Garden>은 이연숙 작가의 초기 비닐-봉지 작업으로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생태적 문제의식의 맹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작가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엄마'라는 기호는 비닐이라는 일회적이고 짧은 사용 가치에 대비되는 오랜 사랑, 회귀할 고향, 가족, 생명, 사물의 재생, 돌봄 등 생태적 삶의 의미들을 담은 이름으로 명명된다고 할 수 있다.

6.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2021)

드리밍과 니체적 영원회귀-긍정의 삶

호주 원주민의 삶을 통해 그녀는 '장소-기억'의 사물들 속에서 삶이 유전되고 회귀하며 과거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니체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추구한 삶의 표층성(Oberflächkeit)이다. 표층성은 이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 세계나 이데아와 같은 심층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의 진실을 향한다. 즉 진지함과 무거움이 아닌 표층적이고 가벼운 삶이다. 변화하는 자연과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끝없이 생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삶을 죽음의 재탄생의 형태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표층적인 삶이란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어떤 가혹한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삶 자체를 긍정'하고 파괴조차도 생성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디오니소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데자트의 원주민 예술가들의 삶은 백인 사회에 의해 은폐되고 짓밟혀졌을지라도, 그들이 지상의 사물들에 새겨놓은 언어를 통해 역사와 삶의 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그들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연숙은 그 사막의 붉은 땅, 녹슨 철처럼 붉고 결이 고운 흙, 각종 허브, 사람들의 체취 등을 담은 '냄새, 소리, 촉각, 움직임, 퍼포먼스'를 공감각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겪은 경험의 시간을 '장소-기억'의 예술로 이 시대의 무대 위에 현전하게 한다.

8. <Mother and mother>(2020)

여성과 자연, 자아의 거울

수립뉴웨이브아트랩 2020년 선정작가로서 개최한 전시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에서 선보인 영상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했던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의 명언을 가져온 이 전시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물들을 예술 언어로 전용하고 사적 기억을 퍼포먼스와 설치 형식으로 풀어냈다. 퍼포먼스 작품은 작가가 ‘기억’을 주제로 다루는 전체적인 작업 맥락에서 엄마, 할머니, 딸 등 여성에 초점을 맞춘 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여성과 모성에 대한 보편적 서사로 확장한다. 선보인 작업 가운데 또 다른 영상작업 <Mother Dear>가 서로 손뜨개질을 하면서 두 여성이 서로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Mother and Mother>는 젊은 여성 둘이 종을 치면서 마주 걸어오다가 서로 스치며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은 종을 치는 두 여성은 엄마의 20대와 딸의 20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내러티브로 설정되어 있다.

작가가 사적인 기억으로 언급하는 엄마는 점차 매향리와 호주 등지에서 만난 자연을 모성과 동일시하고, 엄마-자연-대지라는 기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other and Mother>은 엄마와 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나아가 자연과 인류의 모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바람 그리고 작가 자신을 엄마에게 투사하는 자아의 거울이 그려져 있다고 하겠다.

1. <Mom's Flower Garden>(2012)

Plastic Bags vs Mother/ Eco Friendly Life

The work was presented at the 2012 《Kumho Young Artist》 exhibition when she returned to Korea. It was significant attention from critics in Korea as an extension of the plastic bag works that she had been pursuing in the UK. <Mom's Flower Garden> holds significance as Lee Yeonsook's early plastic bags work, marking the inception of her ecological awareness regarding plastic usage. Additionally, the recurring symbol of 'mother' in her works represents enduring love, returning to one's roots, family, life, the regeneration of objects, care, and other ecological meanings, contrasting with the transient and short-lived utility of plastic.

6.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2021)

Dreaming and Nietzschean Eternal Recurrence—Embracing the Affirmative Life

Through the lives of Australia's Indigenous people, she found a profound insight that life is a continuum, echoing and past moments are perpetually reborn within the present. Nietzsche's proposal to overcome nihilism through the pursuit of the superficiality(Oberflächlichkeit) of life aligns with Lee Yeonsook's approach. This superficiality, according to Nietzsche, isn't burdened with seriousness or weight but embraces a light and superficial life. It acknowledges that our lives are ceaselessly regenerated within the dynamic nature and reality of the world. It involves embracing life as a continual cycle of death and rebirth, viewing life's challenges as positive opportunities, and even finding joy in the creative potential within destruction—a Dionysian attitude. In essence, a superficial life reflects a Dionysian attitude that 'confronts life's challenging problems with a positive affirmation of life,' even celebrating destruction as the delight of creation. In the lives of Indigenous artists in the Desert, despite being overshadowed and trampled by white society, their stories endure through the language etched onto earthly objects, recording fragments of history and life. Similarly, Lee Yeonsook vividly unfolds the timeline of her experiences, portraying them as the 'place-memory' art of this era. She achieves this by sensitively directing the sensory elements of the desert's red soil, the rusted iron-rich fine earth, various herbs, and the 'smells, sounds, touch, movements, performances' of people's gatherings.

8. <Mother and mother>(2020)

Women and Nature, Mirror of Self

This work is one of the piece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Until the Mist is Drawn, There Was No Mist》 part of the 2020 Soorim New Wave Art Lab's selected artists. Drawing from Oscar Wilde's famous quote, "Before Whistler painted it, there was no mist in London," the exhibition explores the reinterpretation of commonly overlooked everyday objects into the language of art, unraveling personal memories through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The performance piece <Mother and mother> extends the overall context of the artist's work focused on the theme of 'memory,' delving into personal memories centered around women such as mothers, grandmothers, and daughters. <Mother and mother> captures the image of two young women walking towards each other while ringing bells, brushing against each other as they continue their journey. This video is set in a narrative where the two women ringing the bells transcend time and space, representing a meeting between a mother in her 20s and a daughter in her 20s. The mother mentioned in her personal memories is gradually equated with nature encountered in places like Maehyang-ri and Australia, expanding as a symbol of motherhood-nature-land. In this context, <Mother and mother> reveals the solidarity of women named after mothers and daughters, expressing the artist's hope for an ecological community that seeks to restore the motherhood of nature and humanity, serving as a mirror of the self projected onto the mother.

유현주 (총괄기획자)

Yu Hyunju (Director)



유현주는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Th. W. Adorno의 미학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생태미학예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생태문제 및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전시와 세미나를 기획해 왔다. 2017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주최한 《기후변화대응화학예술특별전: 화성에서 온 메시지》 전시와 2020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축전의 전시로 《불의 기억》 전시 감독을 역임하였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한 <한국생태미술의 흐름과 현재> 연구조사사업의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2022년 캐나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기획에 당선되어 2023년 전시를 진행하였다. 2022년부터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Yu Hyunju earned her Ph.D. in Aesthetics, focusing on the aesthetic research of Th. W. Adorno at Hongik University. Since 2013, she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Center for Eco Aesthetics and Art Research, delving into research on ecological issues and technology, while also orchestrating a variety of exhibitions and seminars. In 2017, she took the helm as the director for the exhibition <Climate Change Response: Chemical Arts Special Exhibition – Messages from Mars> sponsor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In 2020, she curated the exhibition <Memory of Fire> at the World Cultural Heritage Festival in Jeju. In 2021, she assumed the role of lead investigator for the research project <Flow and Current State of Korean Eco-Art>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lected in 2022 to curate a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anada at the Korean Culture Center in Canada, she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exhibition in 2023. Since 2022, she has worked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ciences at Hannam university.

이연숙 작가 몽타주

Lee Yeonsook Montage

삶 속의 기억을 작업의 원천으로 하여 그 기억과 연관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재료와 매체를 사용하고 다양한 장소 및 사람들과 협업하여 쉽게 수렴되지 않는 다채로운 작업을 하는 이연숙 작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망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글은 작가 연구에 참여한 15인의 비평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연숙 작가와 작업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한국현대사와 서양현대사를 넘나드는 역사적 참조, 미술사학, 기호학, 정신분석학과 주체이론을 소환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한 15인의 연구자들(유현주, 고충환, Holubizky, 이선, 정현, 남인숙, 오진이, Huang & Narendra, 이선영, 백기영, 마동은, 유영아, Kagan)의 연구 성과를 거쳐 우리는 어렵פות하게나마 작가의 몽타주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소개글의 성격상 다 담아내지 못한 개별 연구의 섬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비평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Lee Yeonsook draws inspiration from memories embedded in life, using a diverse array of materials and mediums intricately tied to those experiences. For better understanding, a more insightful approach involves examining Lee Yeonsook's artistic prowess and the significance of her creations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is text provides a sweeping introduction to Lee Yeonsook's artistic endeavors, drawing on the findings of 15 critical research studies conducted as part of the artist's exploration. Through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15 contributors (Yu Hyunju, Kho Chungwan, Ihor Holubizky, Lee Sun, Jung Hyun, Nam Ihnsook, Oh Jinyee, Evelyn Huang & Yuka Dian Narendra, Lee Sunyoung, Peik Kiyoung, Ma Dongeun, Rue Youngah, Sacha Kagan) who have introduced various methodologies incorporating historical references transcending Korean and Western modern history, art history, semiology, psychoanalysis, and subject theory, we will be able to draw glimmering a montage of her. The details of each individual study, not entirely encapsulated in this overview, can be explored in the respective critiques.

정수경 (책임연구원)

Chung Sukyung (Principal Researcher)



정수경은 서울대 미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하였고, 현대미술과 숭고미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 삶에서 미술이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또 무엇이든 좋을지에 대해 학교와 미술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있으며, 고민의 결과를 글과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등 다양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Chung Sukyung majored in aesthetics and art theory in the dept. of aesthet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ot the Ph. degree on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and the contemporary art. Respecting on what art was and is and would be in human life, acting in the academy and the field of visual art, she writes and teaches on art and aesthetics. She has given lectures at SNU, Hongik Univ., MMCA, LEEUM, Nam June Paik Art Center, etc., has participated in many art researching projects including Digital Archiving Project on Senior Artists, and now teaches aesthetics and art theory at Cha University.

기억을 담은 몸, 그리고 장소

Body and Place Imbedded with Memory

이연숙에게 작업은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모든 삶이 기록될 수 있는 것도 그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억된 것이 중요하다. 또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연숙의 작품에서 기억이 선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과 비현실의 자연스러운 접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현실은 현실로 가기 위한 문턱이 된다. 현실은 자명하게 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장치의 매개를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미지의 세계다. 초기 작업부터 분명한 관계성의 추구는 조각적 기념비도 무형의 서사도 아닌, 작가의 행위와 결합된 사물로 나타난다. 대개 그 사물은 현실에서 발견되거나 수공적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공예적 기법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오래된 상징이다. 여기에 관객의 해석학적 상상력까지 포함된, 작품을 통해 펼쳐진 시간이 서사이다. 펼쳐지는 시간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시간의 단면으로 나타나곤 하는 추상적 공간의 일면성을 완화하고자 한다.

For Lee Yeonsook, creating art is not much different from 'recording her life.' However, not everything in life is worth recording. What matters is what is remembered. It seems that memory is preferred in Lee Yeonsook's works, and the reason behind this preference lies in its natural connection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It's important to note that reality, in her perspective, isn't something self-evident; rather, it's the unknown world that necessitates exploration through the lens of artistic devices. From Lee Yeonsook's early works, a clear pursuit of relationality unfolds, what matters are not sculptural memorials or intangible narratives, but objects combined with her actions. It is often found in reality or crafted manually. Craftsmanship is a recurring element in Lee Yeonsook's works, and craft itself is an ancient symbol passed down from hand to hand. Through such works, a narrative unfolds in time, incorporating the interpretative imagination of the audience. It is a narrative of time unfolded through the artwork, aiming to alleviate the one-sidedness of abstract spatiality that often appears in moments through sensitivity to the unfolding time.



미술평론가 이선영은 이화여대 생물학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과 수료하였다. 1994년 평문 「정보혁명 시대의 미술양식」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해서, 웹진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과 [미술평단] 편집장을 역임했다. 2006년 제1회 정관 김복진 이론상. 2009년 한국 미술평론가 협회상(이론부문). 2014년 AICA Prizes for Young Critics(국제예술평론가 협회)를 수상했다. 2019-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아트 가이드(<http://www.dalj.in.com>)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Art critic Lee Sunyoung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degree in Biology and completed her studies in Art History at Hongi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She prize in essay 「The Styles in Information Revolution Age」 of the Chosun Ilbo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She is as an editorial board member for the webzine [Art and Discourse] and as the editor-in-chief of [Art Criticism]. The Winner of 1st Jeong Gwan Kim Bok-jin Theory Award in 2006, and in 2009, She received the Korea Art Critics Association Award in the theory part. In 2014 She won the AICA Prizes for Young Critics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Critics. During 2019 to 2023, She worked as a judge for the Chosun Ilbo Annual Spring Literary Award in the art criticism. Currently, she regularly shares her insights through columns on Seoul Art Guide (<http://www.dalj.in.com>).

연대기: 너와 나의 어셈블리

Chronology: Assembly of You and I

「연대기: 너와 나의 어셈블리」는 이연숙의 작업 세계 전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연대기(chronology)로서의 접근과 3대에 걸친 여성에 관한 기억과 일화를 통해 시대, 사물, 장소, 물질, 비물질, 자연 그리고 자유와 해방에 이르려는 작가의 열망을 내포한 연대(solodarity)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연숙의 작업은 주로 개인의 기억을 기반으로 나아가는데,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뒤부터 ‘비닐봉지’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기억을 상기하는 방식에서 점차 장소-특정적 작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적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광주 구국군광주병원, 매향리교회)과 마주하면서 작가의 의식과 사유의 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2013년 호주노마드레지던시에서 경험한 호주원주민작가들의 공동체적인 삶과 여전히 공명하고 있는 신화적 세계가 포용하는 대지로서의 여성 창조 신화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장소-특정적 작업은 특정 건물, 시설물, 주택, 기억이 없는 생산물로서의 건물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유형을 아우른다. 이연숙의 장소-특정적 작업은 매우 한시적으로 전개되어 공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기억을 이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제의적 성격의 개입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소환시키기도 한다. 2013년 이후 그의 작업은 다소 산만하게 전개되어왔으나 2021년 대안공간 루프의 개인전 《프로토타입_기억공간_몸 소리 문》에 이르러 비로소 작업의 양태가 비로소 연극성, 즉흥성, 참여 기반의 다원적 미학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Chronology: Assembly of You and I」 is an approach that examines Lee Yeonsook's entire work over time. It carries a double meaning of 'solidarity', encompassing the era, objects, places, materials, materials, nature, freedom, and liberation, through a chronology that explores memories and anecdotes about women spanning three generations. Lee Yeonsook's work over time is primarily based on personal memories. Starting from the use of the symbol 'plastic bags' to evoke memories, the work gradually transitions from memory-based to sight-specific works after returning from the UK to Korea. This change is marked by the encounter of personal memories with public memories (Gwangju National Hospital for the April 19th Uprising, Maehyang-ri Church), expanding the artist's consciousness and contemplation. At the core of these changes is the influence of the creation myth of women as the land of the Indigenous artists' communal life experienced during the 2013 Nomadic Residency in Australia, a myth that still resonates. Therefore, Lee Yeonsook's sight-specific works encompass a wide range of types, from specific buildings, facilities, and houses to buildings as products without memory. Her sight-specific works unfold temporarily, transferring her memori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pace and sometimes summoning the meaning of the space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suggestive nature. Although her works have been somewhat scattered since 2013, it is only with the solo exhibition 《PROTOTYPE_Memory Space_Body Sound Door》 at the alternative space LOOP in 2021 that the form of her work begins to crystallize as a performative, improvisational, and participatory-based multi-aesthetic.



정현은 미술 현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평가, 이론가, 교육자이다. 예술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로를 따라가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잇자잇자)을 운영하면서 포용적 예술의 실천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와 비장애의 관계맺기를 위한 뉴큐레토리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한국미술다시보기 1990-2007』(2022, 현실문화 (공동 엮음), 『NFT, 처음 만난 세계』, 시공아트(2022, 공저), Art Cities Of the Future: 21st Century Avant-gardes, Phaidon, (2013, 공저) 등이 있으며, 《이상뒤상》(한국현대문학관, 2013, 김장언&정현), 《시간의 밑줄》(한가람미술관, 2015), 《그다음 몸》(소마미술관, 2016),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위상공간, 2021)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Jung Hyun is a critic, theorist, and educator deeply immersed in the art scene. His doctoral research, which explores the pathways shaping artists' identities, led to his current position a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nd Fine Arts at Inha University. Since 2018,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overseeing the operations of 'Itzza Itzza' a social cooperative focused on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part of his commitment to fostering inclusive art practices. Lately, 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new curatorial approaches to enhance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ong his notable publications are 『Rethinking Korean Art 1990-2007』(2022, hyunsik Book, co-author), 『NFT, A World I First Met』(2022, Sigong Art, co-author), and 『Art Cities Of the Future: 21st Century Avant-gardes』(Phaidon, 2013, co-authored). he has also curated exhibitions like 《Yisang Duchamp》(Korea Contemporary Literature Museum, 2013, co-curated with Kim Jangun), 《Underline of Time》(Hangaram Art Museum, 2015), 《Next Body》(Soma Museum of Art, 2016), and 《Infinite Flowers Have Blossomed》(Topological Space, 2021).

기억의 복화술, 무의식보다 깊은, 때로, 깃털처럼 가벼운

Ventriloquism of Memory: Deeper than the Unconscious, at Times, as Light as a Feather

작가 이연숙의 작업은 사물 속에 소생한 기억이 말을 한다는 점에서 기억의 복화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엄마를 불러오고, 아버지를 불러오고, 할머니를 불러오고, 유년을 불러오고, 오래된 집을 불러오고, 광주를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고, 장소를 불러오고, 시대를 불러오는, 그렇게 기억을 부르는, 기억이 화자로서 증언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 기억을 매개로 부재 하는 것들, 상실한 것들, 억압된 것들, 더러 죽은 것들, 그러므로 혼(유령)을 부르는(초혼)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 때로 그리움으로 화해진, 빛바랜 시간을 부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기억을 통해서 말하는, 사실은 기억 뒤편에 숨은 작가가 말하는 작가의 작업은 사사로운, 일상적인, 소시민적인, 평범한, 애뜻한, 살가운, 공동체적인, 역사적인, 사회(학)적인, 때로 윤리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층위가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일구고 있었다.

The works of artist Lee Yeonsook can be termed ventriloquism memories, as they articulate within objects. It recalls the mother, the father, the grandmother, childhood, an old house, Gwangju, history, places, and eras. It is a process of calling forth memories, transforming them into narrators, bringing forth the absent, the lost, the suppressed, and even the deceased—thus, it might be labeled as a conjuring(ancestral spirits) of spirits(ghost). At times, it becomes white through longing, invoking faded times, a work that speaks through memories. Through the voice of memory, she communicates, and indeed, her hidden scenes of memory articulate a body of work that weaves together various layers: every day, the petty bourgeois, ordinary, tender, communal, historical, social (scientific), sometimes ethical, and existential. These layers interact, forming an organic unity.



고충환은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키치의 현상학 이후, 신세대미술의 키치 읽기>로 등단했다. 그동안 《재현의 재현전》(성곡미술관), 《비평의 쟁점전》(포스코미술관), 《조각의 허물 혹은 껍질전》(모란미술관), 《드로잉조각, 공중누각전》(소마미술관)을 기획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2006)과 공저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2001)이 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으로 있다.

나르시스의 침묵과 보류된 감각: 이연숙의 설치를 중심으로

Narcissus's Silence and Suspended Sensation: Focused on the Installation of Lee Yeonsook

이연숙은 장소를 만들어나가는 작가이다. 작가는 “기억을 통해 공간이 장소(place)로 변형된다”고 하며, 기억을 현재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에 갑자기 혈류가 돌듯 감각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건이 장소이다. 이 장소에 보류된 감각이 다시 살아나 현재를 이룬다. 다시 말해, 기억을 불러내서 ‘장소’로 조직해내는 이연숙의 작품은 지금, 현재의 공감각의 장소이자 시간인 것이다. 정신분석은 기억을 숨어 있는 말처럼 여기면서 이 말을 건지는 작업으로서 숨은 말을 끌어내면서 보류된 감각을 우리 앞에 풀어낸다. 언어는 무의식에 숨은 말로 있으면서 현재를 다시 구성할 뿐 아니라 그 언어가 무의식을 이룬다. 이연숙이 다루는 사물은 모두 기억 속에 숨은 말이자 무의식으로부터 드러난 ‘숨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연숙의 작품이 구체적인 사물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능의 바깥에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미지 언어이면서 맥락이고, 이 맥락이 ‘장소’를 구성한다. 장소를 일으키는 숨은 말은 우리 몸짓이나 피부에, 표정에, 손끝에, 눈짓에 섞여 현장의 언어로 말문을 열고 있다.

Lee Yeonsook is an artist who constructs places through her work. She asserts that "spaces transform into places through memories," shaping memories into the present moment. Suddenly, in a space unnoticed by anyone, sensations come alive like blood flowing, and a new event becomes a place. The suspended sensations in this place come alive again, constituting the present. In other words, Lee Yeonsook's works, which invoke and organize memories into 'places,' are both the current sensory places and times. Psychoanalysis lifts memories like hidden words, revealing the suspended sensations as it draws out these hidden words. Language exists as hidden words in the unconscious, not only reconstructing the present but also constituting the unconscious. The objects Lee Yeonsook deals with are all words hidden in memory, revealed from the unconscious as 'hidden words.' Even if Lee Yeonsook's work is made up of concrete objects, it functions beyond utility as an 'image language,' a context, and this context constructs a 'place.' The hidden words evoke a place to open their mouths in the language of the scene, mixed with our gestures, skin, expressions, fingertips, and glances.



남인숙은 수학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구예술발전소 초대소장, 대구현대미술제 총감독 역임 등 기관운영과 기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더니티와 도시』(공저) 등의 저술 이외 등재지 논문 게재 및 미술평론을 통해 미학자로서 성실하게 작품해석 및 학술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 운영위원으로 미력하나마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으며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억의 이미지를 조각하는 수행자

The Performer Sculpting Images of Memory

이연숙의 작업은 개인과 가족, 세대와 사회, 역사와 문화가 얽혀 있는 기억의 행위이다. 사소하지만 명확한 내러티브를 가진 작가가 말하는 '기억'은 비닐봉지라는 한없이 가볍고 초라한 사물 속에 무한히 증식하고 있다. 또한 비닐봉지 작업을 통해 입을 수 있는 이연숙의 수행적 태도와 그 과정이 내포하는 수행적 성격은 설치미술가라는 작가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보완 장치가 될 것이다.

작가가 조각하는 이미지는 심연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었던 조각난 기억들을 현실로 소환시키는 매개로 기능한다. 이는 곧 그의 이미지가 예술가의 의지를 대변하는 유희적 언어로써 끊임없이 생명력을 자가증식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연숙의 작업에 주목하며 그의 이미지가 보여줄 기억의 단상들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Lee Yeonsook's work is an act of memory intricately woven with the individual and family, generations and society, history, and culture. The artist, with a subtle yet distinct narrative, speaks about 'memory' that endlessly multiplies within the infinitely lightweight and humble object of a plastic bag. Furthermore, Lee Yeonsook's performative attitude and the performative nature inherent in the process, as evident in her plastic bag works, could serve as an intriguing complement to expand the identity of the artist as an installation artist.

The images crafted by her function as a medium that summons fragmented memories that could have sunk into the abyss into tangible reality. This implies that her images, as a playful language representing her intentions possess the power to continually self-revitalize and proliferate. This is one reason why we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Lee Yeonsook's work, anticipating the glimpses of memories that her images will reveal in the future.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독립큐레이터 활동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현대미술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재)광주비엔날레, 대구미술관 등 공공미술기관에서 전시기획 및 예술행정을 담당하며 주로 인문학을 근간으로 한 융복합미술 및 다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전시기획으로 《Decololes》(프랑스, 파리), 《에코시스템: 질바비에》(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야외프로젝트》(국립현대미술관), 《MMCAxKNDC 퍼포먼스: 예기치않은》(국립현대미술관), 《다니엘 뷔렌》(대구미술관) 등이 있다.

기억을 상연하는 수행자

The Performer Performing Memory

이연숙은 개인의 기억을 매개로 다양한 사물들을 설치, 조각 등의 형태로 실험해 왔다. 이 작업들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거나 장소 특정한 공간들 사이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대를 연상시킨다. 동시에 관람객은 이 무대에 초대된 퍼포머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작가 스스로가 기억을 상연(perform)자가 되기도 하고 전문 무용수를 초대해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 작업은 이연숙의 작업이 참여적인 형태의 커뮤니티 아트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기도 하다. 에리카 피셔 리히테(Erika Fischer-Lichte)는 공연의 매체적 조건으로 '행위자와 관객의 신체적 공동 현존'에 대해서 말한 바 있는데, 이연숙의 작업에서 행위자와 관객은 서로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그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며 상호 간의 접촉을 통해서 멀거나 가까운 거리, 공적이거나 사적인 관계, 시선이나 몸의 접촉 등이 발생한다.

Lee Yeonsook has experimented with various objects in the form of installations, sculptures, etc., using personal memories as a medium. Many of these works often evoke certain events or traverse between site-specific spaces, giving the impression of a stage rather than an exhibition space. Simultaneously, viewers are invited to become performers on this stage. At times, the artist herself becomes a performer, enacting memories, and occasionally invites professional dancers to present performances. This work marks a turning point for Lee Yeonsook's practice, transitioning beyond participatory forms of community art. Erika Fischer-Lichte has discussed the 'corporeal coexistence of performers and spectators' as a medium-specific condition of performance. In Lee Yeonsook's work, roles between performers and spectators may interchange, forming a sense of community among them. Through mutual contact, distant or close distances are established, involving public or private relationships, as well as occurrences of gaze or physical contact.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였다.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래로 2007년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를 걸쳐 2009년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지원팀(2013)과 북부사무소장(2015)을 역임하였다. 경기문화재단 재직 당시, 「커뮤니티와 아트」(2010), 웹진「뚝뚝커뮤니티」(2013-2014), 「예술로가로지르기」(2013-2014), 「커뮤니티 사이트」(2014), 「커뮤니티아트 글로벌 네트워크」(2014), 「커뮤니티아트 출판시리즈」(2014)등을 기획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운영부장으로 2020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을 역임하였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서울시 공공미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소 · 조각의 공공 기억: 이연숙 작업에 있어서 공적 장소의 사적 차원

Public Memory of Place and Sculpture: The Personal Dimension of Public Space in Lee Yeonsook's Works

이연숙의 공적 장소 작품에서 일종의 감응(affective), 즉 이연숙 작가 본인의 언어로는 '기억'으로 통칭되는 바는 그 맥락상 무수히 많은 느낌(feeling), 감정(emotion)이 더 중심적이다. 시엔 응가이(Sianne Ngai)의 표현을 빌어 기술하자면 이러한 개념들이 연속적으로 지각주체이자 감정주체인 인간 주위를 도는 양태이자 현장에 가깝다. 공적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까다로운 감정들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중략) 이연숙은 기억을 발굴, 생성, 또는 주입하여 비장소의 장소화를 도모하는 동시대 주류적 흐름과도 거리를 두면서 작품의 내용, 형식, 위치하는 공간 등 역사적으로 공공 미술이 공공성을 획득해온 여러 요건들을 유연하게 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연숙의 공공 미술 작업은 동시대 공공 미술의 역할과 형식에 대한 대안적 유형으로서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Lee Yeonsook's public place works, a kind of affective, referred to in her language as 'memory,' is contextually more centered on countless feelings and emotions. To borrow the expression of Siianne Ngai, these concepts are closer to the forms circulating the human subject as the perceiver and emotive entity, akin to the scene. What is the source of the power of such works that can evoke more complex emotions in an unspecified multitude within a public place?...Lee Yeonsook, while maintaining distance from the contemporary mainstream trend of excavating, generating, or injecting memories to spatialize non-places, flexibly incorporates various historical requirements that public art has acquired over time, such as content, form, and the situated place. Her public art, as an alternative form to the roles and forms of contemporary public art, is expected to stimulate deeper research in the future.



회화와 미술사를 전공했고 현대 중국 미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이론 분야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면서 《Re:Quest-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2013), 《우성 김종영 탄생 100주년》(2015), 《거짓말》(2019), 《뫼에인, 내 마음 속의 오목렌즈》(2023)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현대 미술과 미술관학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삼고 있으며 출판 프로젝트 [시공아트 x 서울대미술관 현대미술ing]시리즈의 기획을 맡고 있다.

이연숙의 장치와 퍼포먼스: 인간과 비인간이 만들어 내는 이종적 네트워크

Lee Yeonsook's Devices and Performances: Heterogeneous Networks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이연숙 작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여러 일과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작가가 할머니, 어머니를 거쳐 습관적이고 강박적으로 이어져 온 삶의 태도에서 발견하는 개인적 서사는 작가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경험과 유사한 태도를 작가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회에서도 발견, 확장하여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작가가 유도하고 끌어내어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방법에서 어느 것 하나 수동적인 역할은 없다. 각각이 하나의 완벽한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 작가를 매개로 번역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이리저리 행위자들의 역할이 치환되어 다른 존재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이종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의 선(善)을 끌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The new values created by Lee Yeonsook are based on various experiences and memories that the artist has personally undergone. However, the personal narrative discovered in her habitual and compulsive life attitude, spanning through her grandmother and mother, is not limited to the artist alone. The attitudes akin to personal experiences that the artist uncovers extend beyond her context to be found and expanded upon in other societies, leading to questions about not only her identity but also what society entails. There is no passive role in how various performers, guided and drawn out by her, come together to live. While each constitutes a perfect network, during the translation stage facilitated by the artist, the roles of the performers interchange, forming a heterogeneous network that accommodates and understands different existences. In this process, she actively plays a role in extracting the public goodness, where nature and humanity coexist, by bringing forth diverse networks of interactions.



유영아는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미디어사업TF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임기제 학예연구사, 아시아문화원 전시기획팀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2022년에 생태계 평형이란 경계에 인간이 계속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수학, 물리학의 경계조건이란 용어를 빌어 와 살펴본 《경계조건》, 2021년에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모색한 《포스트휴먼 상상블》, 2020년에 아시아 작가의 기억을 중심으로 환경 이슈를 다룬 《이퀄리브리엄》, 2019년 빛, 도시, 역사를 키워드로 민주, 인권, 평화를 고찰한 《라이트 온 더 무브》, 2015년 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 큐레이션 아카이브 전시 《ACC IN FLUX》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개인의 기억과 중첩된 한국현대사—이연숙, 기억의 편린들

Korean Modern History Overlaid with Personal Memory: Lee Yeonsook, The Pieces of Memory

격동의 한국현대사의 흐름과 배경을 통해 우리 역사와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이연숙의 주요 작업으로 기록된 과거의 기억이 재해석, 재구성된 작품들을 필자는 연구하여 해석해 나간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이연숙의 어린시절 경험과 기억의 편린들이 기록된 삶과 작업세계를 풀어내었다. 장소와 시대적 풍경들, 그리고 개인의 기억 속 의식과 무의식이 모티브가 되어, 역사가 깃든 공간과 장소특정적 작업으로 구현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작업은 작가의 오랜 기억을 들춰내는 인터뷰 및 작가 노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This study reflects on the flow and background of the tumultuous modern history of Korea, examining the shapes of our history and life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 of memories recorded in Lee Yeonsook's major works. In particular, starting from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unravels Lee Yeonsook's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threads of memory recording, exploring the life and artistic world. Motivated by the landscapes of places and times,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within personal memories, the works from 2019 to 2021, realized through historically imbued spaces and site-specific works, were examined and research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artist, artist statements, and the artworks, uncovering the artist's long-held memories.



회화와 미술이론을 전공했고,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신화, 현실이 되다》 공동 큐레이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 <캐나다 북극프로젝트>사업 선정,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사업 선정. 제13회 광주비엔날레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시《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 공동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 발굴 《불가능을 통해 약속된 가능성》展 등 다양한 시각예술 영역의 기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 Space is Transformed into a Place through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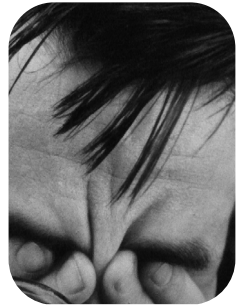
기억으로 장소화된 공간

I have selected only two aspects of Yeon Sook Lee's multi-faceted work as both are linked by her expressions of memory. We all have memories, but only artists can express this, figuratively-speaking, through things and actions. In this way art can bring us to our own thoughts and our own personal experiences. Due to practical circumstances - relying on documentation and correspondence with Yeon Sook Lee - I approached this writing through three methodologies rather than the more typical conventions of a single descriptive analysis. I have addressed the object, found and repurposed, through psychoanalytical theory; the devices employed by the artist through literary formalism; and the position of the viewer through the uncertainty principle of early quantum mechanics.

My interest in Yeon Sook Lee's work developed due to her open and generous responses, and answers to my questions. Hence the writing is not a judgement on my part. Rather, it became part of my path to understanding and hopefully the viewer, for their own path. The creative act always belongs to the artist, and yet within the creative act sits paradox in which the artist offers us agency, a way to generate and influence our thoughts.

나는 다면적인 이연숙의 작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하였고, 이는 그녀가 기억을 표현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예술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작가 고유의 영역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예술은 우리에게 사유와 경험을 가져다준다. 작가와 소통이 자료나 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서술적 분석이 아닌,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난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작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대상을 찾고 용도를 변경한 지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형식주의를 통해 작가가 사용한 다양한 장치를 들여다보았다. 마지막으로 초기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원리를 활용하여 관람자의 위치를 주목하고자 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녀와의 대화에서 얻은 개방적이고 관대한 답변으로 인해 나의 시각도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나만의 주관적인 시각이 아닌, 작품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에게도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창조적인 행위는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작가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이호르 홀루비츠키는 작가이자 역사학자이다. 그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큐레이터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강의해 왔으며 다양한 국제 출판물에 기고했다. 홀루비츠키는 캐나다 예술위원회로부터 큐레이터 초빙 장학금을, 그리고 호주 예술위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카마쿠라&하야마(Kamakura&Hayama) 현대미술 박물관에서 레지던시로 체류하였다. 그는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Ihor Holubizky is a writer and historian. He has held curatorial positions across Canada and in Australia, has worked and lectured internationally over the past 40 years, and has contributed to numerous international publications. Holubizky was awarded a curator senior grant from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and a professional development grant from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for research residency at the Kamakura & Hayama Museum of Modern Art. He received his PhD in art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Yeon Sook Lee's Sustainable Place-Making

이연숙의 지속가능한 장소-만들기

Sacha Kagan's article approaches the works of artist Yeon Sook Lee as instances of sustainable place-making. Places are not simply found, but made by collectives of human and non-human beings, and they form a "meshwork" through assemblies of sentient beings and objects. The complexity of places goes beyond physical spaces and involves sensory and emotional significance, meaningful encounters, and the interplay of memories. Yeon Sook Lee's installations and interactive performances invite visitors to ponder and participate in place-making, whereby the engagement with memories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The artist's works elevate everyday objects and experiences, especially those with person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highlight the agency and imaginative possibilities of individuals in shaping their environments. Yeon Sook Lee's works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imensions of places, blurring the boundaries and emphasizing their entanglement. Her art embodies a sensitivity to imaginative, emotional, and symbolic aspects of place-making and contributes to cultivating cultures of sustainability.

사샤 카간(Sacha Kagan)의 글은 이연숙의 작품을 지속가능한 장소 만들기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장소는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동체에 의해 조성되며, 감각을 지닌 존재들과 사물 공동체를 통해 그물망(Meshwork)을 형성한다. 장소의 복잡성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감각적, 정서적 의미,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기억의 상호작용까지 아우른다. 특히, 이연숙의 설치작품과 참여형 작품들은 관람자를 장소 만들기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초대하며, 작가의 작품이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일상적인 대상들과 경험들을 촉발하고, 개인들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상상력 있는 가능성을 끌어낸다. 이연숙의 작품들은 사이의 얽힘을 강조하며 장소의 유, 무형적 차원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녀의 작품은 장소 만들기의 상상적, 정서적, 상징적인 측면들에 대한 민감성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사샤 카간은 예술 사회학자이자 문화 연구자로, 현재 독일의 힐데스하임 대학과 루네부르크 대학에서 DFG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유럽 사회학 협회(ESA)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네트워크: 예술 사회학》과 네트워크 《컬투라21 인터내셔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화 현장 작업》을 운영해 왔다. 그는 2018년에 “바사랍 니콜레ску(Basarab Nicolescu) 융합과학 및 공학상” 수상자로, 70편 이상의 출판물을 저술하였고,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했으며, 십여 개가 넘는 예술 프로젝트에 기여하였다. 그는 2011년에 루네부르크 대학에서 미술관 (비)지속가능성에 관한 박사학위를, 2021년에는 문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능발달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최근 저서는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ity: Urban Spaces of Possibilities』 (Routledge, 2022)이다.

Sacha Kagan is a sociologist of the arts and a cultural researcher, currently based at the Universities of Hildesheim (as Principal Investigator of a DFG-funded research project) and of Lueneburg (as a ‘Privatdozent’), in Germany. He coordinated the “Research Network: Sociology of the Arts” at the Europ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5 to 2017) and the network “Cultura21 International: Cultural Fieldworks for Sustainability” (2005 to 2016). He is a recipient of the “Basarab Nicolescu Transdisciplinary Science and Engineering Award” (2018), author of over 70 publications, director of three documentary films, and contributor to a dozen arts projects. He completed his PhD in 2011 on art and (un-)sustainability, and his Habilitation in 2021 on culture and sustainability, both from the Leuphana University Lueneburg. His latest major publication is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ity: Urban Spaces of Possibilities (Routledge, 2022).

I Remember You: Collective Memory and the Changing Role of Women

나는 너를 기억해: 여성의 역할 변화와 집단 기억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is site-specific and local-specific.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owned by installation artworks that are made to respond to a particular site so that they cannot be moved anywhere. Meanwhile, local-specific installation works are related to the local context that shapes the narrative of the work. The strength of the local context of a work can sometimes make the work can only appear intact when it remains tied to its locality and physical reality. "Old House" (2015) is a site-specific and local-specific work by Yeonsok Lee, an artist from South Korea. The work elaborates on his personal memories as he responds to a particular site, in this case, an old house in the Seongbuk-dong area of Seoul. This paper further explores how the work "Old House" can function as a medium to communicate Lee's memory of his mother; and why Lee's memory correlates with universal values to make it a collective memory. The transformation of Lee's personal memory into collective memory explains the attempt to make the narrative in the memory relevant in the global contemporary art scene.

동시대 미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작품이 '장소 특정적' 이거나 '지역 특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장소에 반응하도록 설치된 작품들은 다른 곳으로는 옮길 수 없는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적 맥락과 깊이 있게 연결된 설치 작품들은 해당 작품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적 맥락의 힘은 작품이 지역과 물리적 현실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때에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한국 작가 이연숙의 작품 <오래된 집 The house>(2015)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집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에 반응하며 제작되었다. 이 글은 <오래된 집>이 엄마에 대한 작가의 기억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매체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그 기억이 보편적 가치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며 집단 기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세히 탐구하고자한다. 이연숙의 개인적 기억이 어떻게 집단 기억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은 전 세계적인 동시대 미술신에서 기억의 서술적인 관점을 유의미화 하고자 한다.

Evelyn Huang, Yuka Dian Narendra

이블린 후앙, 유카 디안 나렌드라



이블린 후앙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강사로, 그녀의 삶에 있어 지식을 끝없는 여정으로 삼고 있다. 이블린은 자카르타 예술 대학에서 창조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문화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십 년 동안 그녀는 ARCOLABS와 함께 미디어 아트 전시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경제부총리실 산하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Evelyn Huang is an Indonesian curator and lecturer who pursues knowledge as a never-ending path for her life. Evelyn graduates with an MFA in Creative Entrepreneurship from Jakarta Institute of Arts after she obtained her Master's Degree in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For the past ten years, she has curated media art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with ARCOLABS. She is now working full time as a consultant for Indonesian training program under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유카 디안 나렌드라는 독립 음악 프로듀서이자 사운드 레코딩 엔지니어로, 인도네시아 대중문화 연구자이다. 그는 헤비 메탈과 문화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인도네시아의 헤비 메탈을 서브컬처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에 위치한 마타나 대학에서(Matana University) 예술, 디자인 및 인문학부의 전임 강사로 재직 중이며, 인도네시아 현대 미술, 대중문화 및 문화 연구에 대한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밴드와 함께 녹음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해 발매된 Voice of Baceprot(VOB)의 3번째와 4번째 싱글의 음악 프로듀서로서 작업했다. 그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Yuka Dian Narendra is an independent music producer, sound recording engineer, and researcher of Indonesian popular culture. His passion for heavy metal and cultural studies led him to expand the study of heavy metal as a subculture in Indonesia. He is now working as a full-time lecturer at the Faculty of Art, Design and Humanities, Matana University, in Banten, Indonesia, and is an experienced lecturer and writer on Indonesian contemporary art, popular culture and cultural studies. In his spare time, Yuka continues to pursue his own recording projects with his own band. His latest work as a music producer was Voice of Baceprot (VOB) 3rd and 4th singles which were released last year. He loves spicy good food.



Mom's Flower Garden, 2012

비닐봉지, 재생펠릿
가변설치



이식 Transplant, 2013

장소특정 공간 풍선 설치, 잉크젯 프린트
가변크기



**Vanished Landscape with 5 Steps
Distance_the Wild SWAN Lake, 2014**

비닐봉지, 프레임, 조명
각 180 x 120 x 30 cm



**사실, 끼어진, 사실_Memory from the
Garage, 2015**

공간설치 영상 (flexible wall 위에 투사된 영상),
16:30:00, 혼합재료
가변크기
https://www.youtube.com/watch?v=Y3p2LDHv_XM



난인척하는 파_Garden, 2015

화분, 나무, 파
가변설치



Space_Fluid Moment, 2017

발견된 오브제 위에 칠
46x26x6cm



붉은 땅 하얀 기, 2020
 마른 플라타너스 나무, 흙, 영상, 종이, 향수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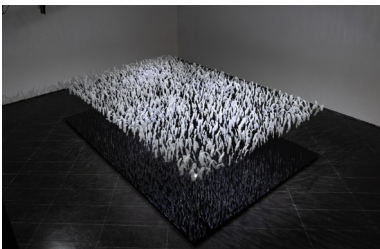
Mother and mother, 2020
 영상, 3면 커튼 설치
 00:02:17"



Reflective Reflection, 2020
 영상 (loop),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설치



아무도 모르는 일 0518, 2021
 철 주물, 흙
 특정공간 가변설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021
 스테인리스 스틸, 깃털, 아크릴판, 스티로폼 시트,
 사운드, 조향된 향기
 약 400x600x120cm



우듬지에 서서, 2021
 영상
 00:10:12"
<https://youtu.be/eZSQ71XnURA>

총괄기획자	유현주	Director	Yu Hyunju
책임연구원	정수경	P. Researcher	Chung Sukyung
연구원	이선영 정현	Researcher	Lee Sunyoung Jung Hyun
필진	고충환 남인숙 마동은 백기영 오진이 유영아 이선 이호르 홀루비츠키 사샤 카간 이블린 후앙 유카 디안 나렌드라	Contributors	Kho Chunghwan Nam Ihnsook Ma Dongeun Peik Kiyong Oh Jinyee Rue Youngah Lee Sun Ihor Holubizky Sacha Kagan Evelyn Huang Yuka Dian Narendra
감수	유현주 정수경	Intensive Editor	Yu Hyunju, Chung Sukyung
행정	유현주 문예슬	Administration	Yu Hyunju, Moon Yeseul
아키비스트	이연숙 김유영 이아영	Archivist	Lee Yeonsook
번역	한수지 (mwa press)		Kim Youyoung, Lee Ayoung
디자인	이경민 (mwa press)	Translation	Han Suzi (mwa press)
출판	므와 프레스	Design	Lee Kyungmin (mwa press)
후원	한국예술문화위원회	Published by	mwa press
발행날짜	2023. 11. 30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ISBN	979-11-91103-03-8	Date of Published	2023. 11. 30
		ISBN	979-11-91103-03-8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mwa press

비매물/무표
95600

9 791191 103038
ISBN 679-11-91103-03-6 (PDF)